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상 국

양복 입은 뱀

'사이코패스'란 말이 연쇄살인범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다. 유영철과 강호순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남은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흉악범들은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처럼 양복도 입었고 좋은 차도 몰고 매력 있는 미소로 주위의 환심도 사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겐 자신의 공격적 성향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본능적 위장술이 발달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함을 눈물로 위장한다거나 사탕 같은 사랑을 입에 물고 살았는지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춘 채 다가오는 폭력이다. 눈에 보이는 광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질 나쁜 악일수록 그 가해의 수법이 주도면밀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대부분 그 가해의 정체에 대해 모르게 마련이다.

더 치사한 폭력은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뻔뻔한 얼굴들로부터 나온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정의를 일깨우기 위해,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정치판의 목소리 높은 정치꾼들을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의 〈남다른 지능과 위장술로 사람들을 조종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화이트컬러 사이코패스'〉를 '양복 입은 뱀'이라고 비유한 말에서 입씨름의 명수 정치꾼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

정치판 정치꾼에 대한 불신이다. 분명 우리네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일단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개판으로 달라지는 그 두 얼굴에 대한 배신감이다.

나라 걱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싸움의 선봉에 섰다는, 그들의 높은 목소리는 우리의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촛불까지 켜들고 거리로 나섰던 것 아닌가.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의 그 맹신적 추종이 좌우 이념의 담 쌓기에, 사회 분열 조장에 기여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달라진 것이 있다. 우리를 조종한 정치꾼 그들의 이름이 빛났고 머리 굴린 만큼 표를 더 얻었으며 당리당략을 위해 몸 바쳐 싸워 얻은 전리품인 저 권좌의 거드름.

오래전 나는 불신과 증오, 소외와 좌절, 억압과 굴복 등 광기의 모태를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사이코 연작 소설 몇 편을 쓴 적이 있다. 이 시대의 광기를 성공하지 못한 악의 한 유형으로 보아 다분히 필요악을 미화하는, 불편한 심기의 반영이었다. 위선과 부패보다는 소외된 인간의 광기가 한결 창조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이면에는 위선의 탈을 쓴 정치꾼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공한 악이라는, 당대 정치판에 대한 환멸이 짙게 깔려있었다.

노름꾼, 협잡꾼이나 다를 바 없는 혹세무문의 정치꾼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서로 마주앉아 진지한 얼굴로 고민하는 정치가를 기다린다. 혼란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립을 조정하고, 맞설 것은 당당히 맞서되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도 소중히 다루는, 그렇게 덕 있는 정치가를 생각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판 행패 그 버전만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정치판 비하의 그 인식을 바꿔놓을 참신한 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희망은 있다. 욕을 하면서도 결국은 한 표를 던져 만들어낸 그 정치꾼들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는 것. '양복 입은 뱀'을 기르는 것도, 우러러 따를 큰 정치가를 모시는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 그 판단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소설가·김유정문학촌 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안 순 일

공교육 활성화 광주교육이 앞장

문치주의로 유명한 송 태조가 가문이나 신분을 떠나 능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과거시험 포고령을 내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가 되는 것은 곧 권력과 경제력을 보장받는 일인지라 선비의 과거준비는 초기부터 과열되었는데, 당시에도 사교육 성격을 띤 가정교사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이 단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정부나 국민에게 사교육은 뜨거운 감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아직은 교육계나 학원가, 학부모 모두 답답하고 안타까운 분위기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 중 '사교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학의 서열화'와 '기업체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는 풍토'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학력과 학벌 중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일류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그룹만이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사회인식이 바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학교수업에 자녀의 미래를 통째로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 그리고 일류대학에 진학하려면 선행학습이 필수라며 부추기는 학원 측의 과장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원인만큼 명쾌한 처방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 대책은 다양해지고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 논란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교육이 올 들어 두 번이나 전국적인 뉴스 초점이 됐다. 지난 4월에는 우리 광주학생의 대입수능성적 1등급 비율이 최근 5년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가 있었고, 며칠 전에는 학교정보공시 분석 결과 우리 광주가 4년제 대학진학률과 이른바 SKY 대학의 진학률까지 전국 최우수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광주교육이 거둔 좋은 성적을 놓고 사교육의 저력이다 공교육의 성과다 하며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우리 광주가 공교육이 활성화된 교육도시라는 뜻이다. 따라서 광주교육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교육의 힘은 교육환경과 교사와 학생 등 삼위일체가 만들어 낸 총 결집체다. 따라서 이번 광주교육이 이룬 쾌거는 좋은 수업환경, 교사의 우수성과 열성,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의욕이 어우러진 당연한 결과물로 본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수능이 실시되기 전인 1991년부터 전국최초로 '교단 선진화 사업'을 시작해 각급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이기자"라는 구호 아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교육정보화, 구축 등을 통해 교실수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한국 교육을 선도하고 확산, 보급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 재능진단과 물적·인적 인프라, 교실수업과 학생 자율학습 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미래의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력 광주의 전통을 어김없이 이어갈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진학정보팀을 만들어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조직·운영하고 진학지도 자료 개발 보급하며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국제교육팀을 신설해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위한 4단계 연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모든 교과교사들의 수업능력과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은 타 시·도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높은 학습효과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영어전용 방송국을 개국하고, 지역별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 원어민 원격화상 콜센터 운영, 초·중 EIC 운영 등을 통해 수능에서 영어과목 역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공교육의 올바른 위상 정립이야말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조건이면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주교육이 추진해 온 공교육 활성화 프로젝트는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지난 6월 8일 안병만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해 "광주시교육청이야말로 전국 시·도가 가장 본받아야할 공교육활성화 모델"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광주교육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지원을 한데 모아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교육감〉

의료 칼럼

최 상 준

산후 우울증, 자신만 생각해라

여성이 아이 엄마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더욱이 임신이 잘되지 않은 여성이 임신 할 경우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산부들은 출산 후에 슬픔, 걱정, 울분들을 느낀다. 이런 감정 중 가벼운 형태를 '산후 슬픔'(postpartum blues)라 하고 거의 대부분 며칠 후에 사라진다.

그러나 임산부의 약 10%에서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이라 불리는 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정신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산후슬픔이란 출산 후에 임산부가 무기력함, 고독,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이런 감정은 임산부들이 예상했던 감정과 일치하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하게 되었지?" 라고 자신도 궁금해 한다. 임산부 70~80%가 출산 약 20일 후에 산후 슬픔을 경험한다. 명확한 이유 없이 임산부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남편에 대해,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며 화를 내기도 한다.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수면, 식사 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생각들은 보통 출산 후 며칠 동안 생겼다가 없어진다.

산후 우울증은 산후 슬픔이 오래 지속되고 걱정, 슬픔, 자포자기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은 악화되거나 오래 지속된다. 산후 우울증은 남편의 도움이 부족하거나 산후 우울증의 과거력, 정신질환의 과거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새로 이사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임산부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나이나 자녀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1천명 출생 중 1~3명에서 발생한다.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가졌던 임산부에서 혹은 가족원 중에서 이러한 질환을 앓았던 임산부에서 그 발생 위험률이 더욱 크다.

다른 사람들보다 변화에 예민한 임산부는 산후 슬픔이나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 완벽한 아기 엄마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날마다 아기 돌보는 일의 요구에 직면했을 때 우울증을 느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예를 들어 모성을 본능으로 생각하고 분만 후 처음부터 아기 엄마는 신생아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임산부는 다른 생활 기술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보는 일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에는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지 엄마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임산부가 한층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면 자신과 아이를 다시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다. 산후 우울증을 앓는 임산부들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족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돌보는 법을 알아야한다. 엄마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지는 것, 외출하는 것, 가족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본인이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혹은 이미 산후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후 슬픔이 2주 후에도 사라지지 않거나 강한 우울증과 분노가 출산 1~2개월 후에 나타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 슬픔·의심·죄책감·무력감 등이 매주 마다 커지고 정상 생활을 방해할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수행하는데 문제를 겪을 때, 식욕 변화, 여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피곤함, 아기에 대한 걱정 및 관심이 과한 경우, 혹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근심 또는 공포발생, 아이와 함께 집에 혼자 남은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경우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사 설

기습 폭우에 맥없이 무너진 방재 시스템

불과 하루 동안에 쏟아진 비로 광주·전남은 물바다를 이뤘다. 농경지와 주택, 도로, 축사 등 지역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역 방재 시스템의 허술함을 한눈에 드러냈다. 재난 방재는 안보전략 차원에 다뤄야 할 중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지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주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도시 정책이다. 아무리 기습폭우라 하지만 하루 만의 비에도 이 지경인데 이틀 사흘 내렸다면 어찌 됐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7일 광주·전남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9천ha가 침수되는 등 수 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말 개통한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구간 곳곳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물이 차올라 4시간 이상 완전 통제되기도 했다.

이번 비는 기록적인 기습 폭우였다는 점에서 피해가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방재(防災) 업무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예상돼 왔지 않은가.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겨우 1년 여밖에 안 되고, 광주·전남의 관문인 무안 공항과 연결되는 지역 주요 기간도로임에도 이 정도의 비로 수 시간이나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재(人災)로 밖에 볼 수 없다.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신안군 자은면과 나주시, 화순군을 비롯한 주택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물을 빼내는 펌핑시설이나 하수관말의 높이, 그리고 하수관거 준설 등 홍수 방지 시설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간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지만 적절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안이한 대응이 사이버 테러 혼란 키웠다

지난 7일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시에 해킹을 당해 접속이 안 되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홈페이지도 한동안 다운됐으며 1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03년에도 해커가 KT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 접속 서버를 공격해 전국의 모든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적이 있다. 또 지난해 2월 옥션 해킹 사건 때는 1천81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집주소 등이 해커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동시에 해킹을 당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부 대응도 너무 안이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나도록 대국민 경보 발령을 미룬 것은 물론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다음날 오전까지 청와대 사이트가 다운됐다.

이번 사건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이버 테러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미국은 연간 IT 예산 대비 5% 정도를 사이버보안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처를 되풀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우리 군(軍)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났으며 미국 연방정부 컴퓨터망에 대한 해킹 시도도 2007년 3천928건에서 작년엔 5천4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광랜 등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앞으로도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테러는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 等 鼓

소상공인 대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으로 불리는 무담보 소액대출이 요즘 인기다. 경기침체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가 운용하고 있는 소액융자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대출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말까지 515명이 15억2천여만원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올 들어 2배 늘었다. 최근까지 1천72명에게 31억원을 융자해줬다. 2~4% 금리에 300~1천만원까지 사업자금, 생활자금, 학자금 등을 빌려 요긴하게 쓰고 최장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원금 상환율이 99%를 넘을 정도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효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었다.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농촌 사람이 단돈 27달러가 없어 일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1976년 치타공 대학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빌려준 것이 은행으로 발전했다. 소액을 융자해주고 직업 훈련, 창업 및 마케팅 지원까지 하는 저소득층 자활 프로그램이다. 유엔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했을 만큼 세계로 퍼져나갔고, 2006년엔 노벨상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상인회 소속이면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도 500만원까지 저리에 빌려준다고 한다. 저축은행들도 소상공인 저리 대출에 가세할 태세다.

문제는 요즘 봇물처럼 쏟아지는 한국판 '마이크로크레딧'이 그라민은행의 소액지원만 모방하고 있다는데 있다. '없는 사람'한테는 돈뿐만 아니라 자활을 위한 정보와 인맥도 부족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하면 마이크로크레딧을 기반으로 돈을 벌어도 러닝머신 달리기처럼 제자리 뛰기에 그칠 수 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